

9/23/18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귀에 초청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 일서 1 장 1-4 절

(요일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절관주** 눅 24:39

(요일 1: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요한일서의 서론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어휘나 문체, 내용면에서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기에 책 속에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더라도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 중 저자를 직접 밝히지 않은 책은 히브리서와 요한일서 뿐입니다.

요한복음이 요한일서와 어휘나 문체, 내용면에서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첫 장 서너 절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태초부터 존재했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며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어휘나 문체도 요한일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라도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1. 기록한 목적이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서 각각 자신의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일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전도 목적으로 요한일서는 믿음에 확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2. 대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요한일서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3. 강조하는 메시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고 구원을 말하는 반면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형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을 말합니다.

4.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이 수직적인 관점으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반면 요한일서는 수평적인 관점으로 인간으로 이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미 믿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쓴 요한일서는 일반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요한복음에 비해 보다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배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형제지간입니다.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리기도 했지만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초반에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제자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고 말년에는 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 당하실 때도 달아났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함께 한 유일한 제자였으며 예수님은 이런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도들이 모두 일찍 순교를 한 것에 비해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약 100 세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일서는 AD 85 년경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 홀로 남았던 노년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초대 교회 시대 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교인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으나 기다려도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은 죽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세대들로 세대 교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에 교회는 초대 교회 때의 뜨거움을 잃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와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차세대 교인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일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일 1: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이란 말에는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고 우주가 시작될 때도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고 있을’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불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그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바로 삼위 일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2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영원한 생명’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에 더 초점을 두었다면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에 더 초점을 두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런 목격자들이 목격한 실제적인 것을 증거한 기록입니다.

그러기에 그 증언들이 2천년이나 지난 오늘에도 진리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즐겨보던 드라마 '수사 반장'을 기억하시죠?

사건이 터지면 수사 반장인 최불암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격자!

사고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사고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이야말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하고 결정적인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임을 강조한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교인들에게 거짓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인성은 부정했습니다.

신이 육체를 가진 사람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목격자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후 영원한 생명과의 사귀에 교인들을 초대합니다.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인간이 타락 전 누렸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과의 사귀에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하나님과 허물없이 대화하고 사귀에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과의 사귀에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귀에란 먹고 마시고 말하고 하는 육신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가 함께 나누는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지면 기쁨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요일 1: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귀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귀에 초청받아 이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각각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